

중간시험 해설

경제원론2
2014 가을

1. 다음 기사를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라. (출처: 세계일보 2013.7.28 일자)

우리나라 실업률이 현재뿐 아니라 내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꾸준히 강조한 고용률 개선은 여전히 더더 OECD 중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1%로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내년 말 기준 실업률 전망치도 똑같이 3.1%로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OECD 회원국 전체의 평균 실업률은 이 기간 8.0%에서 7.8%로 소폭 하락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략..)

하지만 우리나라 고용률은 올해 5월 기준 64.2%로 OECD 20위 수준이다. OECD 평균(65.1%)에도 못 미친다. (이하생략..)

- (a) (10 points) 한국의 고용률은 평균 이하인데 (높은 값이 바람직), 실업률 역시 평균 이하인 (낮은 값이 바람직) 상황은 어떻게 설명 가능한가? 고용률과 실업률의 산출 방식은 OECD 국가들이 모두 동일하다고 한다.

- (a) (10 points) 한국의 고용률은 평균 이하인데 (높은 값이 바람직), 실업률 역시 평균 이하인 (낮은 값이 바람직) 상황은 어떻게 설명 가능한가? 고용률과 실업률의 산출 방식은 OECD 국가들이 모두 동일하다고 한다.

고용률은 $\frac{\text{취업자}}{15\text{세 이상 인구}} \times 100$ 을 나타내고, 실업률은 $\frac{\text{실업자}}{\text{경제 활동 인구}} \times 100$ 이다.

여기서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 활동 인가와 비경제 활동 인구의 합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는

학생, 군인, 주부처럼 구직 의사가 없는 인구를 뜻한다. 이 때 비경제 활동 인구에는

구직을 하다 포기한 '실망 실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이들은 실업자이지만, '실업'

의 기준에서 '구직 여부'를 충족시키지 못해 실업률을 계산할 때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자였던 한 개인이 구직을 포기하고 '실망 실업자'가 될 경우, 실업자 수와 경제 활동

인구 수가 동일하게 줄어들지만, 그 감소율에서 분자인 실업자가 더 크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진다.

그러나 고용률의 경우에는 15세 이상 인구에 실망 실업자가 포함되고,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취업자 수의

- (b) (10 points) 고용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즉, 실업률을 낮추거나 고용률을 높이도록) 정부 비율이 낮은 상황이

1a

- 근거언급은 제대로 했으나, 인과관계 설명부족: -1
- -6
- 기타 오류내용: -1 - -4

10

(b) (10 points) 고용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즉, 실업률을 낮추거나 고용률을 높이도록)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중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 중 최소한 두 가지를 기술하라

장기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에 대해 취업정보센터 제고,

등의 정책이 가능하고, 또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일어나는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인적자원 재훈련, 장기적 직업훈련 등의 정책이 가능하다.

오류점.

1b

- 실업률(고용률) 개선 정책이지만 장기적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는 경우: -1 - -3
- R&D나 인프라 관련 정책의 경우 잠재생산량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있어야 감점이 없음: 이 정책들은 고용지표에 대한 기여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 (예: 고용없는 성장, 단기재정정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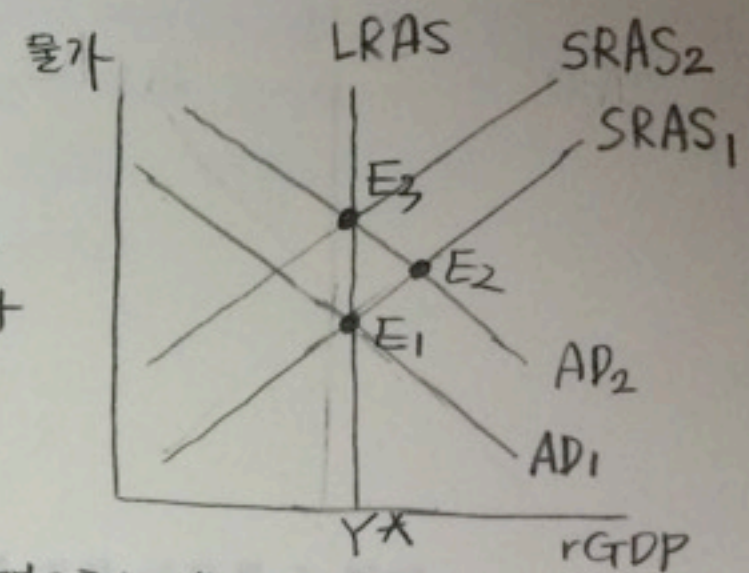
(c) (10 points) 고용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중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설명하고, 그 단기효과와 장기효과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으로 설명하라

이 예전

10 장기적으로 정부는 총 수요를 증가시켜 총생산량을 늘림으로 고용지표를 개선할 수 있다. 이는 경기적 실업을 해결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재정지출에 변화를 주는 것인데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며 총생산량이 증가한다. 통화정책은 화폐의 양,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식인데 화폐의 양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어 투자지출과 소비자지출을 늘려 총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총수요가 증가해서

총수요곡선이 $AD_1 \rightarrow AD_2$ 가되어 물가가 증가된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이 낮아져 명목임금이 증가하고 단기총공급이 $SRAS_1 \rightarrow SRAS_2$ 로 감소하여 $E_1 \rightarrow E_3$ 의 균형지점에 이른다. 즉 물가는 상승하지만 잠재총생산량을 달성한다.



1c

-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쓰지 않은 경우: -5
- 장단기 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기술: -2 - -4
- 장기효과(SRAS 곡선의 이동) 원인 기술하지 않을 경우: -1 - -3
- 기타 오류: -1 - -3

2. ‘고려’라는 이름의 가상의 국가가 있다고 한다. 이 국가는 스마트폰 앱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매우 가상의 경제다. 자세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라.

- 고려에서는 자국내에서 생산한 상품만으로 살아간다. ($IM = 0$)
- 기업 고려광산은 광산에서 직접 자원을 채취하므로 원자재가 필요 없다
- 기업 고려재료는 원광석에서 회로 제작에 필요한 중간재를 추출한다
- 기업 고려전자는 위 중간재로 스마트폰을 생산한다
- 기업 고려컴퓨터는 위 중간재로 노트북을 생산한다
- 기업 고려소프트는 노트북으로 스마트폰 앱을 생산한다
- 기업 고려상사는 해외에서 중고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거래를 매개한다. 직원은 모두 고려인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법인은 완전히 해외에 있다. 물론 이들 직원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다. 직원 외의 모든 생산요소는 현지에서 조달한다.
- 고려전자와 고려컴퓨터의 중간재 수요량은 같다

	고려광산	고려재료	고려전자	고려컴퓨터	고려소프트	고려상사
최종생산물	원자재	전자재료	스마트폰	노트북	스마트폰앱	중고거래서비스
중간재가치						
임금	1000	2000	1000	1500	4000	1000
이자	500	1500	2000	500	1000	500
임대료	1000	500	500	3000	500	1500
이윤	1500	3000	4000	1000	3000	2000
부가가치						
최종재가치						

	고려광산	고려재료	고려전자	고려컴퓨터	고려소프트	고려상사
최종생산물	원자재	전자재료	스마트폰	노트북	스마트폰앱	중고거래서비스
중간재가치	0	4,000	5,500	5,500	11,500	
임금	1000	2000	1000	1500	4000	1000
이자	500	1500	2000	500	1000	500
임대료	1000	500	500	3000	500	1500
이윤	1500	3000	4000	1000	3000	2000
부가가치	4,000	7,000	7,500	6,000	8,500	
최종재가치	4,000	11,000	13,000	11,500	20,000	

(a) (10 points) 고려의 GDP를 최종재가치, 요소소득, 부가가치의 측면에서 계산하라. 필요

하다면 위 표의 공란을 활용하라.

임재현

GDP 이므로 고려상사는 제외한다

$$\text{요소소득} = 9,500 (\text{임금의 합}) + 5,500 (\text{이자의 합}) + 5,500 (\text{임대료의 합}) + 12,500 (\text{이윤의 합}) = 33,000$$

Page 3

(가입순서만
중요하다)

$$\text{부가가치의 총합} = 4,000 + 7,000 + 7,500 + 6,000 + 8,500 = 33,000$$

$$\text{최종재가치의 총합} = 13,000 (\text{스마트폰}) + 20,000 (\text{스마트폰앱}) = 33,000$$

2a

- 노트북을 최종재로 해석 --> -1
- 계산과정누락: 요소당 -1 - -2
- 기타 오류: 정도에 따라 -1 - -3
- 고려상사 포함 계산: -3
- 달랑 숫자만 쓰고 과정설명 누락: 요소당 -2 - -3
- 표 내부의 숫자는 직접 인용하지 않는한 의미가 없음

10 (b) (10 points) 이 경제의 GNI를 계산하라

국제자국내에서의 생산이 모두 자국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GNI는 국내에서 발생한 33,000에 해외법인을 통해 발생하는
1,000의 잉여가 더해져 34,000이 된다.

이상인

2b

- 2a의 결과에 (정답 여부와 관계없이) + 1000 이면 정답으로 인정
 - 해외법인의 소유가 국내라고 해석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 이 경우는 2a결과 + 1000+2000 임
- 숫자는 틀렸으나 이론을 정확히 기술한 경우: 5
- 해외에 지불한 이자, 임대료, 이윤을 포함: -4
- 기타 오류: 정도에 따라 -1 - -4

(c) (10 points) GDP와 GNI에 차이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한 이유를 논하라.
또한, GDP, GNI가 적절한 경우를 각각 한 가지씩 예를 들어 기술하라

오답
10

GNI는 Gross National Income으로 GDP와는 다르게 국적이 아닌 국민에 집중한다. 즉, GNI에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에서 자국민이 벌어들인 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GDP를 국민계정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경우는 그 국가의 경제성장에 대해 탐구할 때이다.

→ 국가경제의 성장에는 국경 내의 해외통과 및 외국인의 노동또한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GNI보다 GDP가 적절하다

GNI는 해외 스포츠 선수가 벌어들이는 자본과 같은 것을 통계에 포함
시킬 때 쓰여지게 적절한데, 이는 이들이 소득을 국내은행에 저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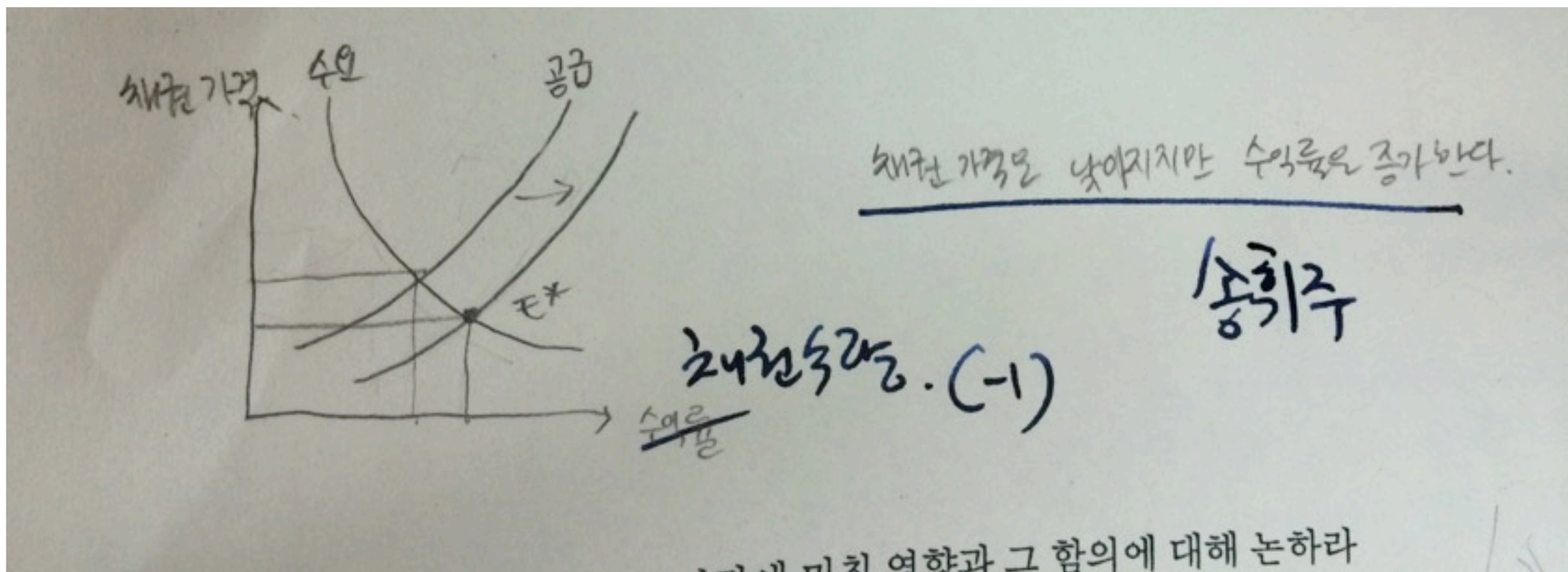
- 각 지표가 적절한 이유를 기술해야 함

3. 고려국은 소비자들의 저축액을 대부자금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도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주의: 수업시간에 배운 대부자금시장과 차이가 있음)

- 오직 소비자들만이 저축을 할 수 있다
- 모든 저축액은 대부자금, 혹은 채권시장에 들어간다
- 이 나라의 대부자금시장은 오직 기업에만 대부될 수 있다
- 이 나라의 채권시장에서는 오직 고려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만을 취급한다
- 채권시장의 성격은 수직축을 채권 가격으로 할 경우 우상향하는 공급곡선,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특성을 보인다.

고려정부는 10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단기 경기 부양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필요한 대규모의 재원은 국채로 충당하려고 한다.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라.

- (a) (10 points) 채권시장에 발생할 상황을 그래프로 설명하라. (Hint: 채권의 가격을 수직축으로 설정)



3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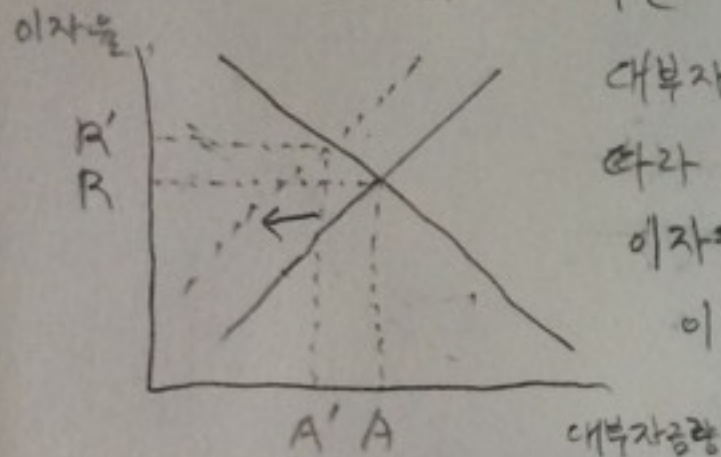
- 균형수량 감소: -4 - -6
- 채권의 변화한 수익률, 거래량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 공급증가를 공급곡선의 좌이동으로 해석: -4 - -5

10

(b) (10 points) 위 사업이 대부자금시장에 미칠 영향과 그 함의에 대해 논하라

위 사업으로 인해 국채 수익률이 증가하여 소비자들은 채권시장에 몰려들 것이다.

<대부자금시장>



이는 대부자금시장에서 공급되는 대부자금량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A \rightarrow A'$).

대부자금시장의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 돈이 더 귀해졌다는 뜻이며 이에 따라 대출비용인 이자율이 상승한다. ($R \rightarrow R'$) 이 나라의 대부자금시장 수요자는 기업들이다.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이자율보다 수익률이 낮은 기업들은 대출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것은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을 불러일으킨다.

강민영

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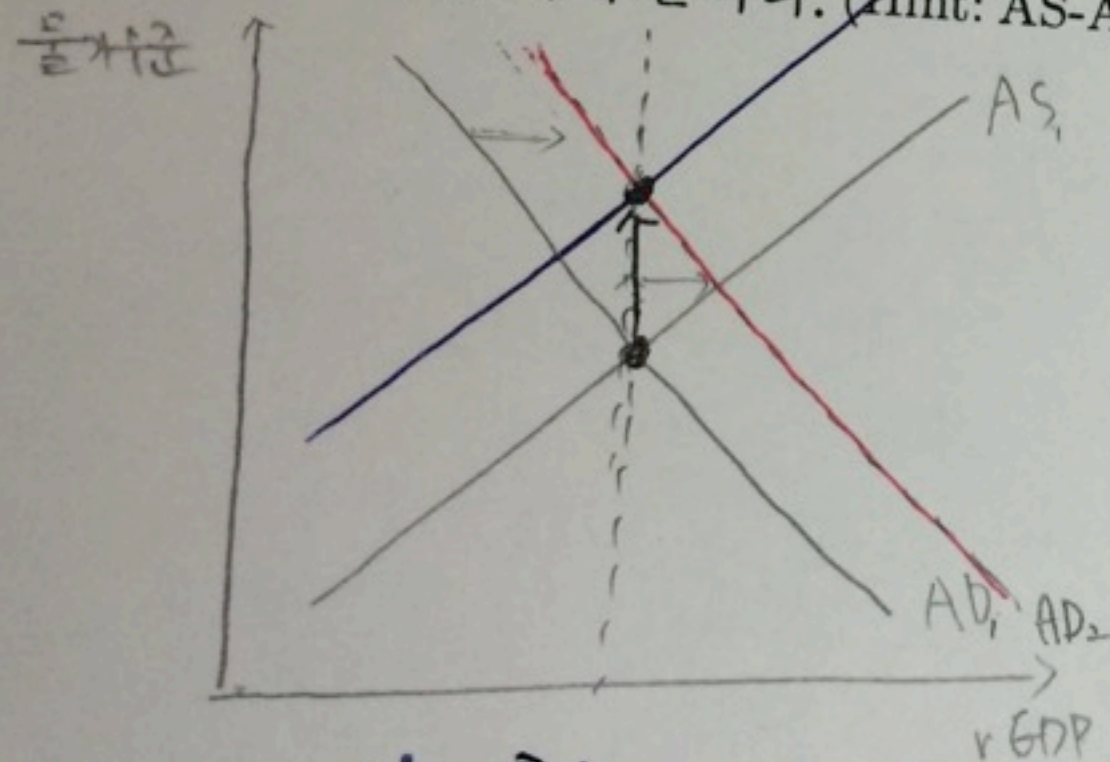
- 3a의 결과에 따라 결정됨 --> 대부자금시장과 채권시장은 대체적 성격이 있음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 채권량 증가 --> 대부자금량 감소
 - 채권량 감소 --> 대부자금량 증가
- 다음과 같은 논지도 정답 인정
 - 채권수익률 감소[증가] --> 대부자금시장으로 자금 유입[유출] --> 공급 증가[감소]
- 대부자금수요변동으로 해석: -3 - -5
- 함의 기술하지 않은 경우: -3 - -6

(c) (10 points) 위 사업이 실시될 경우 채권의 수익률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논하라

3c

- 3a의 결과에 의존
 - 수익률 변화방향 <--> 채권가격 변화 방향 (서로 반대)
- 기타 다른 방식의 설명은 내적 논리의 타당성에 따라 배점
- 채권 수익률을 “이자율”로 표기 : -1

(d) (10 points) 이 사업은 재정 부양과 함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반적인 생산성을 상승시킬 것을 노리고 있다. 그 의도가 부합했을 경우와, 그렇지 못했을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할 장단기 효과에 대해 논하라. (Hint: AS-AD 모형과 함께 잠재생산량에 미칠 영향도 고려)



심재하

Page 5

(AD₁ → AD₂)
이 같은 정책(6)의 증가는 AD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물가수준이 상승하고 총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실업률 감소에 따라 '명목임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AS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AS₁ → AS₂) 그래서 결국 장기거시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그 결과 원래보다 물가수준은 높아가고 총생산량은 원래수준과 같게 된다. 이는 이 정책이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했던 상황이다. 만약, 이 정책이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단기적으로는 위와 똑같이 움직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AS₂ 곡선(변화된 총공급곡선)이 우리 경우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어 총생산량이 더 증가한 장기거시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생산성 향상에 의한 잠재생산량증가라는 의미에서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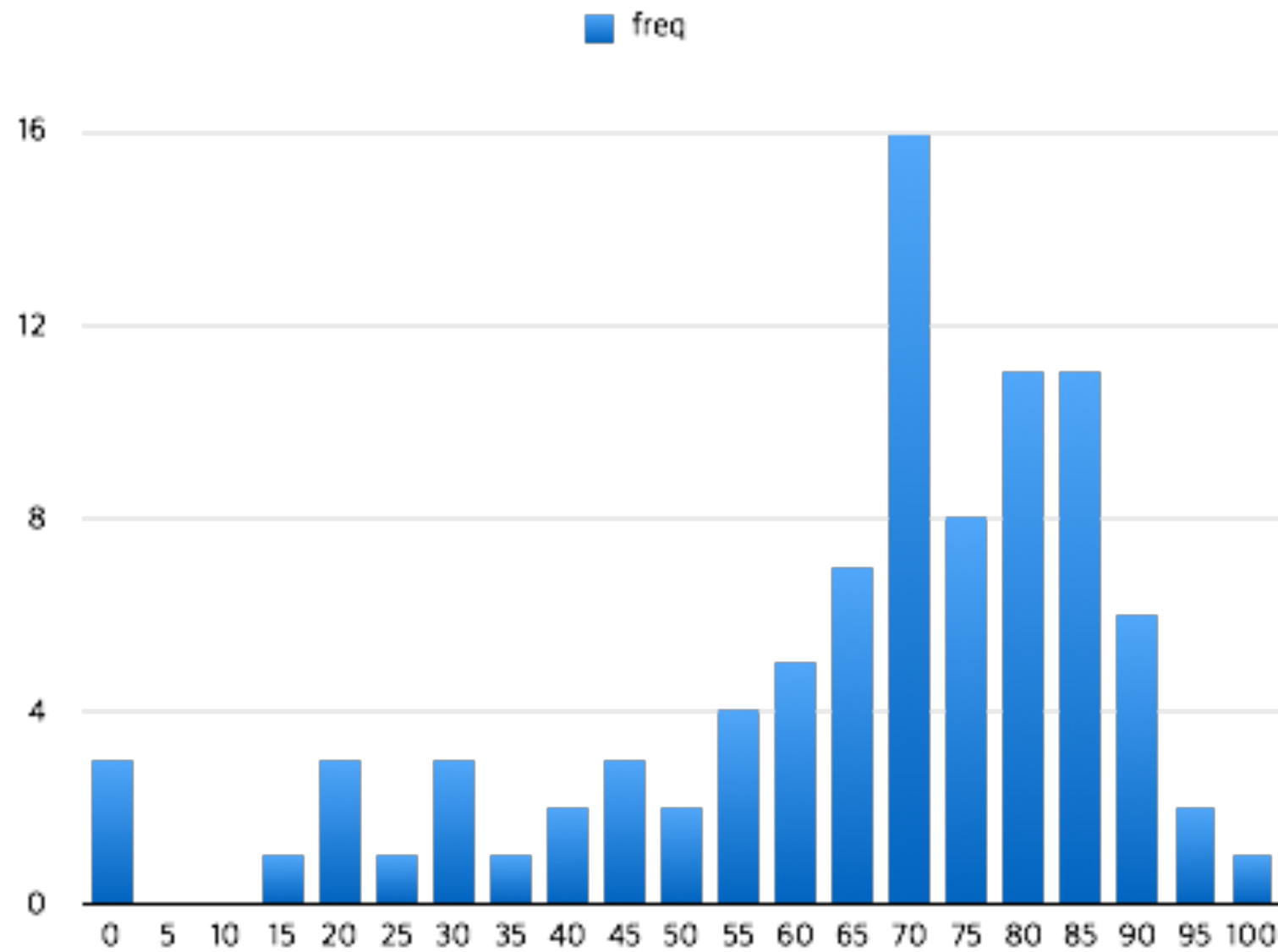
3d

- 각 케이스당 5점
 - 각각 장단기 효과를 기술해야 함

기초통계

- 총 응시자: 90
- 평균: 63.3
- 표준편차: 22.1
- 최고점: 97

점수분포



상위 분위%

